양주 회암사지·언해불서, 세계유산 '시동'

회암사지 예비평가 충족 '가능성'
국가유산청 권고사항 보완 예정
경북불교문화원 학술대회 개최
추진위 발족 후 국내 후보 신청



경북불교문화원이 10월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양주 회암사지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배희정 기자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불교계와 경상북도가 '언해불서(諺解佛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며 국내 불교문화유산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이 다각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회암사지: 14세기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 고고유적' 예비평가 결과,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기준(ii 및 iii)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등재기준 (ii)는 건축·기술·예술 등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iii)은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를 뜻한다. 이코모스는 향후 등재 시 고려할 권고 사항으로 유산의 경계 확장과 등재기준 논리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언해불서 등재를 위한 움직임에도 시동이 걸렸다. (사)경북불교문화원(이사장 도륜 스님)은 10월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훈민정음과 한글불서'를 주제로 한글불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언해불서의 제작·유통, 보존·복원, 장정, 목판 인쇄기술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낙천 배재대 교수는 '불전 언해서를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 주제 발표를 통해 언해불서의 제작·유통 과정과 한글 확산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김영학 경희대 교수는 'Physical AI 기반 언해불서의 물리적 보존·재현 모델 구축 및 이야기 사서삼경 비교를 통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적 가치 규명'을 주제로 훼손된 문헌의 복원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새로운 보존·재현 방안을 제시했다. 홍순천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박사는 '한국불서의 장정형태'를 통해 불서의 장정에 나타나는 특징과 가치를 살폈으며, 박영덕 충청북도무형유산 각자장은 '기록과 각자'를 주제로 목판본 언해불서의 제작 역사와 각자 기술의 특징을 발표했다.

김무봉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참석자들은 언해불서를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의 실제 사용과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으로 평가했다. 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문헌의 역사성뿐 아니라 제작과 유통 과정,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언해불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감대를 모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불교문화원 이사장 도륜 스님은 "언해불서의 유산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도록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불교계는 12월 '언해불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내년 2월 국가유산청에 세계기록유산 국내 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묵에 담아낸 '형상 없는 경계'

김대열 화백 회고전 '무상지경(無象之境)'
10월 28일부터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서
화업 50년 여정 이전작 · 신작 등 70여 점

반세기에 걸쳐 수묵화의 한 지평을 열어온 김대열 작가(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화업 50년을 결산하는 전시를 연다.

세종뮤지엄갤러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서울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에서 김대열 작가 기획초대전 '무상지경(無象之境, 형상 없는 경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최근작 30여 점과 이전작 40여 점 등 총 7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말과 글을 넘어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적 깨달음을 수묵으로 구현한 김 작가의 작품세계를 펼쳐보이는 자리다.

선종 사상과 현대 미학적 요소의 접점을 수묵화로 표현해 온 작가는 그간 '상외지상(象外之象)', '대상무형(大象無形)', '무상유상(無象有象)' 전시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도 형상 너머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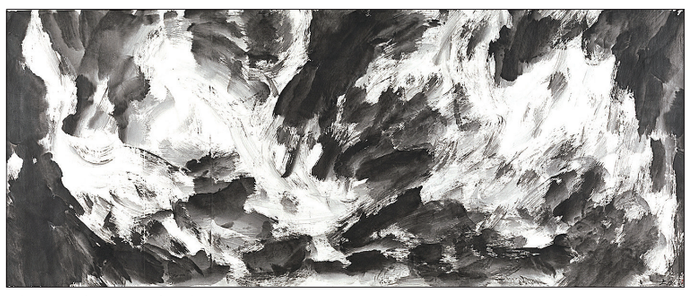
선종의 깨달음, 본성(本性)을 탐구하기 위해 선어록(禪語錄)과 선지식을 찾아 공부하고 화두를 받아 간화선 수행을 거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대로 있음'인 동시에 언어를 뛰어넘는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화면을 압도하는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운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원통 지름 10㎝, 털 길이 20㎝에 달하는 초대형 붓에 먹을 머금고 빠르게 뻗어나가는 필묵의 변화와 효과로 순간의 깨달음을 담는다. 섬세한 수묵의 농담 조절은 화면 가득 담박하고 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표작 '좌간운기(坐看雲起, 앉아서 구름 이는 곳을 바라보다)'는 중국 당대 시인 왕유(王維)의 시 '종남별업(終南別業)'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지·필·묵만으로 몰입의 깊이를 온전히 살려냈다는 평을 받는다. 풍부한 수묵의 조화와 일갈하듯 빠른 붓놀림이 자아내는 공간은 "물길이 다한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이는 곳을 바라보다"는 시적 운치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김 작가는 작업노트를 통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알아차려 '참나'를 찾아가고자 한다"라며 "예무지경(藝無止境, 예술에는 끝이 없다)"이라는 말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김대열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부를 졸업한 뒤 국립대만사범대 학학원에서 석사, 단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를 지내고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와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선종사상과 시각예술〉 등 4권의 학술서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창작 활동과 학문적 연구를 병행해 왔다. 배희정 기자


좌간운기(坐看雲起), 화선지에 수묵, 144X362㎝, 2026.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⑥⓪ 망상분별(妄想分別)

착각과 왜곡의 병

妄想分別

초기 불교 경전은 인간이 겪는 근원적 고통의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그 핵심에는 '빠판짜(Papañca)', 즉 '망상분별(妄想分別)' 또는 '희론(戱論)'이라 불리는 정신적 메커니즘이 있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면 촉(觸)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느낌[受]과 지각[想]이 생겨난다. 그러나 마음이 여기에 언어와 개념을 덧씌우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번져 나가며 관념을 증폭시킨다. 빠판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주관적 해석을 덧붙이고, 스스로 지어낸 관념의 굴레에 갇혀 고통을 키우는 '착각의 공장'이다.

이러한 망상분별은 오늘날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서 임상적 정신병리, 나아가 사회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개인적 차원에서 빠판짜는 '자의식 과잉'과 '반추적 사고'로 드러난다.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거듭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그렇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실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되풀이하며 고통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심화되면 현실 인식의 왜곡과 맞물려 정신병리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비현실적으로 확신하는 '과대망상',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강박장애'가 그 예다. 물론 이러한 질환을 망상분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각각 복합적인 원인과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이 지어낸 해석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인간은 그 해석이 구축한 세계에 갇힐 수 있다.

빠판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집단적 편견과 적대적 해석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됐다.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가르는 진영 논리, 편향된 정보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태는 집단화된 망상분별의 한 양상이다. 복잡한 현실을 선악의 단순한 서사로 재단하는 음모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처럼 마음이 빚어낸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왜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있다. 여실지견이란 선입견과 자의적 해석을 앞세우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듯한 서사를 덧붙이는 대신, '지금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정직한 자기 직시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이어지는 빠판짜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된다.

마음이 그려낸 관념의 그림자를 실재와 혼동하지 않는 것. 생각을 곧바로 '나' 혹은 '진실'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것.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정념(正念)은 망상분별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 지 진 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회 주 눌암 지정
주 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